

# 토정비결

1976년 7월 3일 | 양력 | 여성

토정수

2015

## 연운 (한 해의 운세)

올해는 욕심을 맞이하신 갑진년으로,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한 해입니다.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결실을 맺듯, 지난 세월의 노력이 귀한 결과로 돌아오니 마음을 넓게 가지고 여유를 즐기십시오.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이 상승하고 가정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니,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과 복을 나누면 더욱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. 건강을 잘 챙기며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면 한 해 내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. ##

### 1월

새해 첫 달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길한 시기입니다. 오랜 지인을 통해 귀한 정보나 도움을 얻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.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 해의 큰 그림을 그리면, 앞으로의 운세가 더욱 순조롭게 흘러갑니다. ##

### 2월

재물운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. 작은 투자나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집안에 화목한 기운이 가득 차고, 이것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됩니다. ##

### 3월

복기운과 함께 귀인의 도움이 찾아오는 달입니다. 업무나 사업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니 적극적으로 소통하십시오.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시작하면 일 년 내내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. ##

### 4월

하던 일에 진전이 있고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. 경험과 지혜로 후배나 자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면, 그 덕이 다시 본인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. 재물의 출입이 있으나 들어오는 것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계획을 추진하십시오. ##

### 5월

생일이 있는 뜻깊은 달로, 주변의 축하와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. 이달은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. 작은 여행이나 취미생활이 심신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니 망설이지 마십시오. ##

### 6월

대인관계가 원활하여 즐거운 만남이 많은 달입니다. 오래된 친구나 동료와의 재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, 새로운 인연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합니다. 재물운도 꾸준히 상승하니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. ##

## 7월

한여름의 열기처럼 모든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달입니다. 바쁜 가운데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십시오. 가족과의 여름휴가를 계획하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하반기 운세를 더욱 상승시킵니다. ##

## 8월

재물운이 가장 좋은 달 중 하나입니다.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보너스가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. 돈을 쓸 일도 있으나 가족을 위한 투자나 필요한 곳에 쓰이니 아깝지 않고, 오히려 더 큰 복을 부릅니다. ##

## 9월

안정적이고 평온한 달로,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.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을 일이 생깁니다. 겸손한 태도로 주변과 기쁨을 나누면 더욱 큰 행운이 따릅니다. ##

## 10월

가을 수확기처럼 풍요로운 달입니다.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족 간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. 감사제를 지내듯 조상께 차례를 정성껏 모시고, 이웃과 복을 나누면 집안에 더욱 큰 경사가 이어집니다. ##

## 11월

한 해를 정리하며 차분히 앞을 준비하는 달입니다. 재물운이 계속 좋아 저축이나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합니다. 건강검진을 받고 몸을 돌보면 다가오는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으니 스스로를 아끼십시오. ##

## 12월

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.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한 해의 감사함을 나누십시오. 새해를 준비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면, 다가올 해는 더욱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--- \*\*토정 이지함 선생께서 전하시길\*\*: "육십 갑자의 지해로 세상을 바라보시니, 이제는 육십을 내려놓고 주변과 복을 나누는 해로 삼으십시오. 덕을 쌓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끊이지 않나이다."

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.  
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